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20대 국회의 아쉬움과 21대 국회에 바람
[발제자] 김종석 20대 국회의원, 박수영 21대 국회의원
[일 시] 2020년 06월 04일(목) 오전 10시
▶ 온라인 You Tube 영상



☒ 문자 후원
#7079-4545

제340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대 국회가 임기 말에는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말을 들었다. 여당으로 시작해 1년 만에 탄핵 사태를 겪고 2년 차에 정권이 교체되어 야당으로 마친 역동적인 4년이였다.

- 20대 국회는 제도설계나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비전문적인 입법이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익집단의 조직화된 압력으로 의회 입법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정책이나 입법으로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략과 갈등의 정치투쟁으로 일관했던 것이 아쉬운 점이다.
- 21대 국회에서는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 여당이 제안한 정책에 찬반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없다. 행정부 18개 부처별 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 세부전략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이끌어야 한다.
- 보수는 자유의 가치와 시장경제가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지향가치인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공동체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보수는 자유, 법치 등 핵심 가치를 지키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서 공감 마케팅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존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한 새 얼굴도 필요하다.

◆ 20대 국회의 아쉬운 점

- ◆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대 국회는 임기 말에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말을 들었다. 여당으로 시작해 1년 만에 탄핵 사태를 겪고 2년 차에 정권이 교체되어 야당으로 마친 역동적인 4년이였다.
- ◆ 정책은 과학이며 입법은 제도설계이자 시스템 디자인이다. 그러나 여야의원을 막론하고 제도설계나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입법이 대부분 비전문적으로 이뤄졌다.
- ◆ 이익집단의 조직화된 압력도 입법 활동에 많은 제약으로 가해졌다. 정당은 정책이나 입법으로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략과 갈등의 정치투쟁으로 일관했던 것이 아쉬운 점이다.

◆ 21대 국회의 과제와 포부

- ◆ 20대 국회의 여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 협상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정책적 사안이 적었다. 오히려 여당은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략적 의도가 보이는 법안을 일방으로 밀어 붙여서 강행처리했다.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당은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강경한 투쟁은 또 다른 강경투쟁을 불러왔다.

- ◆ 21대는 소수 야당이었던 지난 20대 국회보다 더 적은 의석으로 출발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177석의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개정을 빼고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했던 길거리 농성, 단식 투쟁, 삭발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사실 야당이 한 투쟁방식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부작용을 유발한 것도 사실이다. 투쟁방식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가장 결정적 요인이기도 했다. 중도성향의 5~8%는 극한투쟁에 거부감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당내 온건파의 점유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 입법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반대나 기권하기보다 먼저 반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리적 토론을 진행하고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신뢰를 쌓고 그 기록들을 남겨 중도의 5%가 서서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미래통합당의 총선 패배원인과 개선과제

- ◆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강경투쟁으로 정권심판을 들고 나갔으나 크게 실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선거가 이뤄지면서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강경투쟁으로 브랜드 된 야당 정권 심판론을 세계 밀고 나가자 거부감을 보였다.
- ◆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여당의 100만 원 포퓰리즘정책이 표심을 움직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로부터 위기 상황에서는 집권세력에 힘을 모아주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현상이 나타났다.
- ◆ 21대 국회에서는 정책만이라도 방어적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 여당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 방식으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없다. 행정부 18개 부처별 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 세부전략을 세워야 한다.
- ◆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얼굴로 전달하는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정당은 비전과 정책을 세일즈 하는 판매조직이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마케팅을 잘 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 이번에 당선된 초선의원이 당내 의석의 60%에 가까운 만큼 새로운 이미지로 마케팅하여 소비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 보수의 가치 재정립, 무엇을 어떻게

- ◆ 보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인 자유, 민

주주의, 법치, 시장경제와 더불어 성공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나가야 한다. 차제에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지향가치인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공동체자유주의’를 알리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 정치는 포퓰리즘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의 가치를 지키되 포퓰리즘 속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정서 공감을 유발하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보수의 가치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으로 세일즈 해야 한다. 기존의 이미지 타파도 필요하다. 새 얼굴과 새로운 세일즈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